

치 사

경애하는 신입생 및 학부모 여러분
그리고 동국 가족 및 내빈 여러분.

오늘은 신입생 여러분이 각고의
노력으로 유수의 명문사학인 동국대
학교에 입학하는 경사스러운 날입니다.

오늘 귀한 자리에 조계종단을 대표해서
신입생여러분에게 치하의 인사를 드리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학교법인 동국대학교는 조계종단의

종지, 종통에 근거한 건학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교육기관입니다.

동국대학교는 굴곡의 근현대사를
관통하면서 수많은 동량을 양성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사회와 역사
발전에 크게 기여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국대학교는 국내의
유수한 명문사학으로 자리 잡았으며,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공지와 자부심의
표상이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신입생 여러분!

여러분들도 가슴깊이 모교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동국대학교는 100년이 넘는 역사를 통하여 우리역사에 많은 족적을 남겨왔습니다. 20만이 넘는 동문이 사회 각계각층에서 모교의 명예를 걸고 최선을 다해 활동하고 있으며, 학문적으로도 인문, 자연, 공학의 모든 분야에서 커다란 성과를 일구어 왔습니다.

이제 동국대학교는 웅비와 도약의 새로운 100년을 힘차게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조계종에서는 동국대학교의 발전과 중흥이 조계종과 불교의 사회적 위상을 높이는 중요한 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단적인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동국대학교를 안정적으로 발전
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입니다.

신입생 여러분!

마지막으로 법구경의 한 구절로 축사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일어나야 할 때 일어나지 않으며,
젊고 건강하면서도 그 의지력이 약하고
게으른 사람은 결코 지혜의 길을
발견하지 못한다.”

신입생 여러분!

동국대학교에서 학문의 연마와 인격의
도야를 위해 쉽 없는 용맹정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입학을 축하드리며, 신입생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부처님의
가피가 항상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2월 23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